종권분산 · 직선제 · 재정투명화 촉구

범불교도대회 열려 1500여 사부대중 운집



조계종 적폐청산과 종단개혁을 위한 범불교도대회가 9월 1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개최됐다.〈사진〉 이 자리서 1500여 대중은 종권분산 · 직선제 · 사찰재정 투명화 · 비구니 참종권 확대 · 자승 총무원장 퇴진 등을 촉구했다.

前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불교인구 감소보다 더 슬픈 것은 반성할 줄 모르는 종단 지도부다. 불자들이 불교의 반성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스님들이 단식으로 항의했지만 저항의 목소리는 침묵의 카르텔로 막고 오히려 왜곡하며 조롱하고 있다"면서 "종헌종법 준수, 수행 보장하는 종단, 직선제, 비구니 권익보호 등은 함께 만들어가는 불교 미래다. 나락에 떨어진 한국불교와 종단을 되살리자"고 목소리 높였다.

전국선원수좌회 선림위원 원인 스님과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대회연설에서 은처, 패거리문화, 삼권분립 형해화 등을 종단 내 적폐로 꼽고 청정승가 구현에 사부대중이 나설 것을 당부했다.

사부대중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과 결의문을 통해 "불교를 바로잡으려는 중생들의 절규를 매도하며 권력 유지에만 집착하는 종단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와 같다"면서 △사찰재정 공영화 및 재가불자 관리 △출가서 열반까지 수행생활 보장 △총무원장 직선제 실시 △적폐 조사기구 구성 △재가자의 종단운영 참여방안 강구 △엄중한 법 집행 △교구자치제 실시 △국가예산 공정한 집행보장 및 정보공개 △ 자승 총무원장 즉각 퇴진 등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설정 스님 "기회된다면 종단 발전에 매진"

9월 8일 수덕사 기자간담회서 사실상 출마 의사 밝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시사했다. 최근 불거진 학력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음을 인정했다.

설정 스님〈사진〉은 9월 8일 수덕사 취송당서 열린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뜻있는 사부대중과 더불어 연구하고 계획해 종단 발전을 위한 인생의 마지막 불사를 하는 것이 내 바람"이라며 총무원장 선거 출마 의사를 사실상 밝혔다.

먼저 스님은 종단의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선거 자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상대를 이기려는 승부욕이 뒤따르기 때문에 파화합, 장로정신 붕괴, 삼보정재 낭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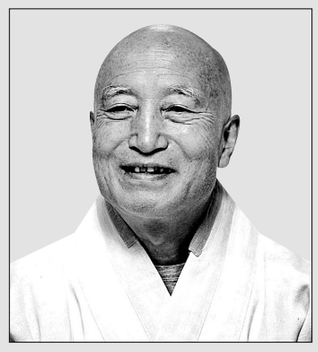
설정 스님은 "종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종단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종회의장을 마치고 총무원장이 돼 변화를 주고 싶었지만 병으로 도전할 수 없었다"고 그간의 안타까움을 밝히며 "종단이 처한 어려움을 종도들과 어떻게 헤쳐 나가고,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교단을 만들어가는 데 여생을 바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총림 방장이자 종단의 어른으로서 현재 조계종이 놓인 상황에 대해서도 가감없는 진단을 내놨다. 설정 스님은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적폐청산 운동은 "교단이 분열돼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판과 문제제기는 종단이 정한 절차와 법규를 지키고,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스님은 "비승가적이고 반불교적인 건 모두 적폐다. 이기와 독선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어느 집단이든 내규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좋은 법이든 미흡한 법이든 일단 따라야 한다. 여기서 일탈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식구의 문제를 헐뜯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잘 되려야 잘 될 수 없다"면서 "이교도가 종단 문제에 함께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방 선교를 도와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최근 불거진 학력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설정 스님에 따르면 스님은 1976년 2월 당시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파화합
교단 신망받도록 회향
法 미흡해도 일단 따라야

학력 논란에는 참회 입장
'서울대 부설 방통대 卒'

이에 대해 설정 스님은 "학력과 관련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 오해가 생긴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개인적 이익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학력 논란은 승려로서 저의 불찰이고 부덕"이라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설정 스님 상좌 주경 스님은 학력 논란에 대해 "수원에 있던 서울대 농과대학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그곳에서 졸업식을 하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불교지도자상을 '청정'과 '여법'이라고 강조한 설정 스님은 끝으로 "우리 교단 사부대중 모든 분들이 식구다. 식구는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며 "불자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내 편 네 편 개념 없이 '우리'라는 바탕에서 점차 교단을 개선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계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학력은 고의적으로 위조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와전'은 타인이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설정 스님은 1980년 작성된 자필이력서에서 '서울대 농과대학 수료'라고 기재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적 기준을 흔드는 것"이라 거세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종교와젠더연구소 교단자정센터 등이 참여했다.

윤호섭 · 박아름 기자



태고종지 받드는 어른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비롯해 11명의 스님에게 종단 최고의 지위인 대종사 법계가 품서됐다. 9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서 봉행된 한국불교태고종 제16차 대종사 법계 품서식에서 도산 · 남파 · 보경 · 대은 · 설산 · 운경 · 운암 · 혜담 · 동우 · 무애 · 도관 스님 등 11명에게 대종사 법계증과 금란가사, 불자(拂子)가 전달됐다. **김주일 기자**

"신행혁신운동, A부터 Z까지 설명해요"

조계종 포교원, '붓다로살자' 안내서 발간



조계종 제7대 포교원이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를 상세히 안내한 책자가 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지난해 8월 포교종책 기자회견에서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를 선포한 바 있다.

특히 새로운 불자상 확립을 첫 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0차례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신행혁신운동 연구기획위를 구성해 9차례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안내서에는 '왜 붓다로 살아야 하는가?'와 함께 '붓다로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챕터를 통해 불자상을 정의했다. 또 '붓다로살자' 청규 챕터에 신행청규와 공동체 청규, 실천약속 등을 명시했다. 포교원 측은 "안내서는 그동안 막연했던 신행혁신을 명쾌히 정의하고, 삶 속에서 실천사항까지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사찰 입구에 배치해 많은 이들이 신행혁신운동을 접하고, 신행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근대불교 대표문헌, 세계에 전한다

조계종, 근대불교문헌 영역본 봉정법회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봉정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책을 봉정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헌 영역본이 완간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9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본 봉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자승 · 교육원장 현응 · 포교원장 지홍 · 중앙종회의장 원행 · 동국대 이사장 자광 ·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정연만 중앙신도회 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사업'은 올해까지 총 10종의 저서들이 영역돼 발간됐다.

사업을 통해 문헌은 △〈백교회통〉(이능화 저, 정단비 역) △〈근대한국불교개혁론〉(한용운 외, 박포리 역) △〈근대한국불교논설집〉(최남선 외, 김성욱 역) △〈경허집〉(경허 저, 존 조르겐슨 역) △〈조선불교사고〉(김영수 저, 토니오 푸기오니 역) △〈조선탑파의 연구〉(고유섭 저, 이승혜 역) △〈근대한국불교시선〉(한용운 외, 데이비드 맥캔 역) △〈각해일륜〉(용성 저, 서정형 역) △〈불자필람〉(최취허 · 안진호 저, 영성준 역) △〈인명입정리론회석〉(박한영 저, 함형석 역)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편찬사를 통해 "근대 문헌 영역 도서 10권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노력 가운데 하나다. 한국불교문헌 영역사업은 우리나라의 사상과 문화가 지닌 보편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종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현대불교 문헌 영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영역사업에 실무를 담당한 김종욱 영역편찬위원회 기획편집위원장(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인터넷 사찰림 정보 오류 바로잡기 시작

사찰림硏, 네이버 등 수정 진행

사찰의 사유림(私有林)이지만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찰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가 나섰다.

사찰림연구소는 8월 27일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 측에 지식백과 상 사찰림 정의에 대한 수정 요청을 통해 정보를 수정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주로 두산동아 백과사전의 내용을 싣고 있다. 수정 전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사찰림의 소유권 등에 대해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사찰림연구소는 기존 사찰림 정의와 함께 사찰의 소유 산림 뿐만 아니라 사찰이 관리하는 산림과 수행과 전법의 공간으로서의 의미, 공익 사회적 가치도 추가했다.

사찰림연구소 측은 다음 백과사전과 위키디피아에 사찰림 정보를 입력하는 등 후속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 접수 공고

1 신청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함.

2 지원 금액

1인당 월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3 지원 신청 및 심사

■ **지원신청 서류** : ①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종단양식: 홈페이지 승려복지) ②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급) ③주민등록등본 ④통장사본(맨 앞면)을 첨부하여 승적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함(기존에 보험료 지원받은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 하반기 : 10월 1일 ~ 10월 31일 – 2018년도 상반기 :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 승적상 재적교구 본사로 우편 또는 팩스
■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서류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 (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참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상반기 제1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16년11월30일 서류마감, 심사 후 2017년1월31일자로 594명 지원함.
- 2017년 상반기 제2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17년5월31일 서류마감, 심사 후 2017년7월19일자로 469명 지원함.
- **2017년 제3차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신규로 신청하는 스님의 신청 서류를 2017년 10월31일까지 승적상 교구본사에서 접수받고, 본사는 접수서류를 종단(승려복지회)으로 이관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확정자에게 12월 중으로 2017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임.**
- 2017년도 1차, 2차 지원받은 스님, 하반기 보험료도 12월 중에 입금 예정임
- 2017년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을 받은 스님은 2018년도 연초에 보험료납부확인서(공단발급)만 제출하면 2018년도 국민연금보험료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입금할 예정임.

4 문 의

■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www.buddhism.or.kr)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